

어른매체

민족생존 위협하는 UR협상 반대한다

사설

총학생회를 단결의 장으로 활용하자

교정 곳곳에 봄을 찾아볼 수 없을만큼 텅 빈 대학 캠퍼스. 학생들의 사색을 도는 유세, 각종 풍습. 우리가 총학생회 회장이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85년 학도호국단의 폐지와 총학생회의 부활이후 동국의 학생회는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양질로 두 성숙하게 발전하고 있다. 동국84년의 퇴락하는 성장속에서 새로운 90년대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기보다 학생대중의 진솔한 이해와 요구를 듣는 장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와 같이 팍팍한 유세와 선전물을 보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닌 선거속에서 각과, 각단체학생회의 분임토의를 이뤄내 일반학생들의 일상적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양부보진영의 선거운동원들이 유세를 하고 일반학생들은 뒤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선거의 모습은 학생대중을 또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91년의 학생회를 이끌어갈 최고지도부를 구성할 시기에 우리는 선거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학생회체제와 사립의 문제에 주목하고 후보들에게 좀더 '단결'하고 '대중적'인 학생회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팔로, 어떤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이후에 통일단결할수 있는 대안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정파적으로 단결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학생회체제속에서 어울려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첫째, 선거는 '단결의 장'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선거는 누가 이기고 누가 권력을 잡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알고 있는 바일 것이다. 양부보진영 학생회를 통과한 소유물이 아닌 학생대중의 것으로 보고 대중이 참여하고 단결할수 있는 선거분위기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둘째, 선거에서 스스로의 정견을 주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자당의 출생신분이 탐욕스런 정치세력의 부도덕한 정권나눔에서 기인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이때 정권의 전락적 구도에 의해 창출되는 공민적 방송제도환경은 국민을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골적인 방송을 통한 지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깨어 있는 시청자의 자제가 요청된다 하겠다. 저널리즘, 비민주적 방송, 반민간적 방송, 반민족적 방송, 반민중적 방송, 관료-예능방송, 선정적-향락방송, 관제방송 등과 같은 악명들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송민주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UR로 자립경제 파괴 자초하는가

우르와이아르도협상 타결시킨 한달여를 앞두고 발생한 이경태 농민투쟁자립회의 회장의 합법기도사건은 "이대로 가다가는 농민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농민들의 말을 실감케 했다. 정부가 매년 강요하는 추곡수매가 한자리수 인상과, 최근 서방 제국주의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해, 농민들은 이제 도시로 도시로 쫓겨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자국에 불리한 섬유류와 같은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그대로 두거나 강화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농업, 서비스업, 지적 소유권에 대한 개방을 일기위해 UR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속셈으로 계속해서 UR타결 압력을 넣을 경우 우리 농민들은 합법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정부는 거의 매년 해오던 것처럼 올해에도 여전히 '허무맹랑한 논리'로 농민들에게 생선비와 소득비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불가인상은 누가 시켜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불가인상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임금인상, 추곡수매가가 아니라, 정부가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했거나 선거를 앞두고 파산한 예산을 연성하고 집행한데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제법들의 부당수탈기도 한몫 특별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정부의 허무맹랑한 논리에 속을 농민은 없고 정부가 계속 흔들림만 팽팡머리악으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불신과 불만이 더해갈 것이다.

정부는 UR협상에서 계속 자신의 논리만 대변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나갈 것인가. 자주-자립경제를 하나둘씩 파괴하는 것을 자처하려는가? "이대로 가면 농민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한 농민의 말을 정부는 상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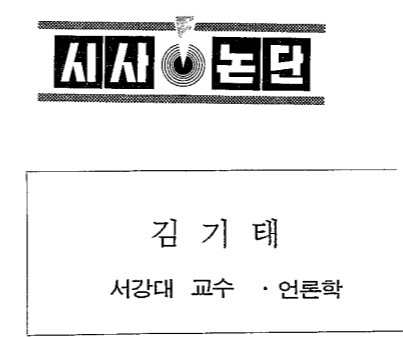
UR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

3당 아합으로 공통처럼 비뚤어진 민자당이 날치기라는 풍자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통과시킨 방송관계법은 말쑥한 민영방송의 존립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방송에 관해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학자와 민주세력들이 적극 반대하는 민영방송을 보란듯이 도입하여 계속적으로 설립을 강행하는 집권여당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적연치않은 의심을 가지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반대에 부딪힐때마다 황급히 둘러대는 민영방송 도입의 명분들은 아무런 살펴보아도 초강경 무리수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 기존 두 방송사가 독점적 위치에 있어서 안전하고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경쟁적 민영방송을 도입하여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명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듯 보이지만 여전히 날치기 통과와 초고속 설립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경쟁을 통한 방송의 발전을 유도하려 한다면 기존의 방송체제내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구태여 새로운

당PD들의 뇌물수수사건이 그러하고 KBS사장의 이취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폭압적 태도가 그러하며 민영방송 선점과정에서의 슬한 의혹을 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새로운 민영방송의 도입이 일선 경쟁을 통한 방송의 발전을 담보해줄 수 있을듯 보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방송의 무한경쟁은 필연적

고 할 수 있겠다. 방송민주화운동을 위촉시키거나 주도적 추진세력을 붕괴시키려는 집권세력의 의도는 곧 방송제정의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조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민영방송의 허가과정에서부터 이미 계획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단언적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그

권은 방송 등 언론을 장악, 조종하려고 애를 쓴다. 3당도 그랬고 유신시절에도 언론의 승리를 염원하며 노력했으며 5공에 이르러서는 아예 언론통제정책을 통해 총체적인 장악을 완결시켰었다. 그리고 6공화국이 다시 언론장악의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무엇이냐 작전개념으로 일을 해치운다. 법정의 소탕도 전횡이란 선언을 앞세운 작전의 수행이며, 민주세력의 탄압이나 위축을 조종해서 실행에 옮긴다. 민영방송의 도입과정도 이런 작전수행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김기태 서경대 교수 · 언론학

인문장악 노골화한 민영방송

인 저널리즘그레화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도 슬한 음모를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부치는 데는 방송민주화 세력에 대한 공격이자 승리를 조이는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이다. 방송관계법의 날치기통과 이후 양방송사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거나 방송제작회사 등을 설립해 분산시켜야 한다는 등의 위헌방안이 흘러나온 것도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인 셈이다. 방송민주화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집권세력의 의지가 KBS사태 및 방송관계법 강행 그리고 민영방송의 도입추진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정확한 진상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민영방송 도입이 곧바로 정부의 방송장악이라는 인과관계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집권세력의 민영방송 도입에 대한 집착과 속도지도를 강행했음에 그 해법을 위해 '시정조거부운동'이라는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부패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모는 정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박혁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일린글터

방관과 무관심은 '소외감'만 낳아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학생회로

가을이다. 대학생활1년, 그 험악했던 시간을 가을이라는 계절적 분위기를 틈타 반성해보면 슬프기만 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소외'라는 것을 대학생활속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외'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다. 내가 품담고 있는 과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학과와 사상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과생들중 나와 같은 삶의 공간에서 고민하고 학습하는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생각이 과생들을 진지하고 열의를 갖고 치면다면 '소외'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학생회는 어느 정도의 소유물이나 선전장이 아니라 과학에서 주인으로 자주적 이해와 요구가 올바르게 실현되어야 하고, 과학우모두의 지혜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가 역사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외'탈출은 선거유세참여로

가 역사속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외'탈출은 선거유세참여로

산·안·공에 무역학 전공교수 웬말 신설과 특성 고려돼야

개교 12주년을 맞은 경주캠퍼스가 날건은 커녕 오히려 퇴색하는 실정이다. 임접하게 선제해있는 문제를 분과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이나, 신설과가 가지는 이월수 없는 특성이라며 학교공공은 무마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결코 묵인하며 지나갈수 있는 일이다. 이번엔 큰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산업안전공학과가 퇴보하고 있는 학교공공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신설학과로서 2학년까지있는 산업공은 작년(89년)까지 전공교수가 한명도 없었던 상태였다. 올해 90학번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거의 1학기가 다 지나고 나서야 1명의 전공교수가 채용되었다. 그러나 전공교수의 공개채용시부터 많은 문제와 의문점이 제기된다. 전공공으로 공제에 신청한 6명의 교수중에서 5명이 산업공을 전공한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박사출신으로 공제신청한 한 명은 전공이 경영학박사과정 수료증인 경

무르듯이 하지 못한다. 전공산의 학생을 안공수 임의대로 고쳐 학생들에게 지기가 고쳐 주었으니 말을 잘 들으라니, '안전공학1' 과정을 자기전공인 경영학공 '통계학'으로 임의 장의하는등 안공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긴것을 불보듯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행하고있는 학교공공은 정말 씩씩대로 씩이 그 밑세개 은 은방글을 꿰고 있다.

이상현 자연대 산업안전공학과

東國漫評



김치심

동학! 광장

모입시다
■안건:성동의 자부심 정우식 (37기)총학생회 회장 출마
■아/ 카니발이다. 105년 역사와 전통 배재학당 씨소뽀빠. 제8회 '배재인의 밤'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번 행사는 특별히, 눈부신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동문들을 위한 환송회도 아울러 갖습니다. 그동안 배재와 함께하신 기라성같은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스런 후배들이 모여 하나되는, 멋진 또 하나의 자리에 많은 참석과 성원으로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호원선배님을 비롯한 5분의 졸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주캠퍼스 부산고등학교, 경남여고 동문일동이 작은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1990년 11월17일 P.M5시
장소:경주 원동식당
-부산고/경남여고 연합동문
■앞으로 들어올 썩어진 우리 후배들을 맞아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도록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불상앞
때:14일 5시
회비:능력껏!
재동대 부천·소명 동문회
■원인이행, 용원이행, 순필이행, 기성이행이 드디어 은방글을 뜨게 되었습니다.
경남고 동문일동은 졸업생 선배님들의 마지막 환송회에 꼭 참여하여 선배님들을 따뜻하게 보내주시다.
일시:1990.11.17. 토요일
시간:오후12시
장소:(대왕극장앞) "아리랑호프"-경남고등학교 동문회
■제1회 전기공학과 카니발
그동안 정들었던 1학년 학생들의 환송과 전기공학과의 영원한 우호와 단합을 위한 전기공학과 카니발이 오는 11월 17일 오후5시 Prince Hotel에서 열릴예정이니 많이 참석하여 성원해 주세요.
끝으로 카니발 준비에 힘쓴

이용범학회장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사를 표합니다.
-85학번 일동
■속초인이여 모이자/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90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서 우리 속초인이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요. 그 래~서, 졸업생 환송회및 여생대동하고 놀기(일명:카니발)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시:11월24일 오후4시
장소:추후공고
회비:배우일2장이상
■흥수행/ 형의 공판때 멀리서 형의 두손에 채워진 수갑과 온몸을 동여낸 밧줄을 바라보며 형같은 사람이 나와야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형, 형이 자가는 감방의 쇠창살안에서 보내야한 1년이란 시간은 결코 잊고 있어 보내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형이 우리를 곁으로 돌아오는 5월의 그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가열찬 투쟁의 밧줄을 걸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형겨울의 메시를 추워만큼이나 혹독한 이 사회현실이 우리를 가로마더라도 형의 뒤에

아르바이트
보람 있는 일로 학비를 벌자!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분투하는 젊은 지성인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아르바이트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함으로써 놀라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을 보람 있는 일로 학비도 벌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봅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여가활동으로 능력에 따라 월 5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영출판사
277-1549, 267-1902, 274-7145 (동국대학교 후문 근처)

사회보도

대중이 기초한 민주노조중요성 재인식

전태일 분신 20주년 기념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심포지엄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사회적 반향으로 가시화 되고 올해 전태일이 결성된 민주노조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지난 7·8일 양일간은 전태일 분신20주기를 맞아 '70·8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결산과 90년대의 전망'에 관한 심포지엄이 연세대 정현기념관에서 열렸다.

전태일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70·80년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각 주제별 발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민주노동조합운동의 평가와 교훈(양승조, 한양대 노동운동연구소장)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70년대 노동운동은 기존 이용노동과 달리 노동자의 자의성을 옹호하는 민주노조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민주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을 지향하게 되어 대중투쟁으로 이끈다는 것, 소수 간부들의 투쟁이 아닌 대중투쟁이었다는 것, 미약하나 군사정권에 타격을 주었다는 점들을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조합운동과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미약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조합운동과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미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업의 여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들의 열정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반기적으로 70년대 노동운동은 여전히 집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노동운동 성장에 뒷받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방승욱, 전태일노동자연구소장) =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80년대는 절적으로 새로운 노동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87년 7·8월 투쟁을 기점으로 노동운동은 소수의 선두적투쟁에서 대중투쟁의 투쟁으로, 생산적노동자 중심에서 사무직을 포괄하는

전·선봉에 집착하는 측면도 있어 대중운동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것을 그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대중적 전개(허병규, 한국노동교육원의회 교육위원) = 87년 이후 노동운동은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으로 전개되었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호헌철폐, 직선개헌, 독재타도'를 외친 6월 민주항쟁이 7·8월 들어 옹호되고 불만에서 분출된 노동대중의 자발적투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민주노조는 노동운동의 전환에 뿌리박은 자주적 단계로서의 성격을 강력하게 띠었으며 이것이 또한

있는 중요한 지점 확보와 전국적, 동시다발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계급적 정치투쟁으로 나간다는 운동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90년대 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김승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 현시기 노동운동은 전후적 대중투쟁을 수행하면서 변혁지향적이지만 아직은 '노동해방'이라는 추상적 구호의외에 구체성이 미약하다.

이제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적 지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민주노동운동이 변혁지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각 단계로서의 성격을 강력하게 띠었으며 이것이 또한

전태일 분신으로 민주노조투쟁 시작

90년대 노조운동-사회변혁 지향이 과제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 시작된 70년대 노동운동은 기존 이용노동과 달리 노동자의 자의성을 옹호하는 민주노조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민주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을 지향하게 되어 대중투쟁으로 이끈다는 것, 소수 간부들의 투쟁이 아닌 대중투쟁이었다는 것, 미약하나 군사정권에 타격을 주었다는 점들을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조합운동과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미약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기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 또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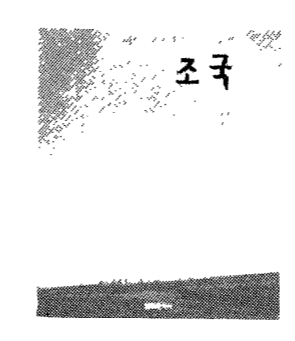
이후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현재 노조가 더욱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은 '노동자는 사회적생산의 직접적담당자'라는 인식을 확립할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87년 노동자대투쟁과 그 이후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동대중투쟁의 강화를 기조로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과 노동대중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결속해갈 수

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등 총체적 대립으로 된다는 것을 전제한 최소한의 계급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변혁의 내용이 단순한 착취제도의 철폐를 뜻하는가 하는 데는 별개의 여지가 있으나 자주, 민주, 통일의 민족주의변혁의 지향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최유복 기자)

서평 최초의 남파공작원의 사실적 수기 '조국' 북한 이해위한 최초의 사실적 자료

남북실재경험의 증언...한민족 재인식 한국전쟁시 미군의 세군전등 자료 많아



조국 (김경연 수필가)

부정을 가지고 북한체제의 모순공격에만 집중되어 있는 내용도 문제라거나 "북한주민과 김일성집단이 일침과 배무로 착취자"와의 관계로 묘사되는 한 일단 그 수기들의 사실성에 대한 신뢰감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똑같은 사실도 북한사회내의 내부적 분위기와 그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과거의 같은 류의 수기에 비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우선 김경연 씨의 특이한 경력에 주목하게 된다.

해방후 남파로 당원과 경찰생활(비밀당원), 인민위원회 보안서원과 한국전쟁시 인민군 장교, 월북해서 노동당 간부와 도당 농업부 부장, 그리고 남파공작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남에서 30년, 북에서 20년, 다시 남에서 20년의 세월을 겪은 한국분단현대의 산증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펼쳐진 45년 세월을 보살필 수 있고 1950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북한사회의 변화과정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남한 최초의 사실적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또한 김경연 씨의 자서전적 경험에 대한 담담한 진술을 따라가며 많은 북한사람들과 접하게 된다. 제대군인, 귀환병사, 전쟁중 치안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전쟁이후 숨겨져 있는 치안대원, 각급 당원들과 인민위원회 사람들, 지주, 농부, 숙청된 사람들 그리고 전후 북한사회건설의 중추였던 '내안의 사업체계'를 수장하였던 김일성이 현직지도자이며 만나는 사람

에 적용시키는 북한주민들의 열성 등에 접한 북한사회에 대한 단절없는 편협한 인식체계를 갖게 된다. "조국"은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당과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불평도 하고 다양한 부류의 주민들과 회의와 사업과 총무에 시달리던 당원들이 북한사회를 건설해 가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북한의 내부적 모습에 대한 진술 이외에도 아직 공식문헌과 자료에 밝혀지지 않았던 귀중한 사실정보 또한 이 책에서 놓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다. 이 책은 북한주민들의 활동과 북한 고위층의 승천 내막, 한국전쟁시 파리에 몸을 던진 미군의 세군전에 대한 증언, "남에서 파견된 테러간첩단 사건" 등은 아직 공식문헌과 자료에도 밝혀지지 않은 귀중한 정보이며 이 책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그 진의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외국이 아니라 한 조국이라는 점과 전라도 개령의 평안도 에미니아는 한 조국 사람이라는 말만으로도 조국이다. 남북 공히 서로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남북간의 교류 차단과 정보의 결핍은 분단의 허구로 이어짐을 생각 할 때 이 책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가 반드시 경외해야 할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세계적'에 말할 수 있다.

소정철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문화분과 연구원>

원천봉쇄 뚫고 7천명 모여 노동운동탄압 분쇄 결의다저

'일요일은 쉬게 해 달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20주기를 맞아 20주기를 맞이했다.

전국의 노동자들은 지난 11일 고령에 모여 전태일 열사 분신 20주기를 기념하며 전노협과 업종별회의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법외의 전태일 열사' 후 전노협등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탄압에 맞서 열린 이날 대회는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전노협 주최라는 이유로 들어 정부측은 잠실운동장을 원천봉쇄, 장소를 고려대로 옮겨 대회를 치렀다. 전야제가 진행된 한양대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공헌이 펼쳐져 노조강령과 대의성에서 풀리듯 투쟁과정을 표현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해방을 결의하는 7천여 노동자들.

후 12시, 본대회에서는 수배중인 전노협위원장 김연태, 김연태 대사가 호위를 받으며 등단해 11월 총결기를 선언했다. 이날 대회도중 사노맹의의 플랜카드가 무대위에 내리자, 대회관계자들은 곧 플랜카드를 떼어내 사노맹과 전노협과의 단절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전태일 열사 추모사업회 주관의 전태일노동운동에는 전노협이 선전해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직접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는 전노협 지도부가 비폭력 평화집회를 결정했으나 경찰은 귀가하던 노동자 학생 3백여명을 불법연행하자 이에 대해 참석자 1천여명은 들고 화염병을 던지며 1시간여 동안 교문투쟁을 전개했다. 가투를 마치고 정리진행에서 대회참가자들은 "지도부가 대회 자체에만 매몰돼 대회이후 대국민홍보에 불철저했다"고 지적하며 25일 민중대회와 11월 총결기를 힘차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사회부)

"후배들과 구출투쟁 벌일터"

지난 10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반미구국전선' 사건관련자 권미영(수학교육·85)양

소위 '반미구국전선'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권미영(수학교육·85학번)양이 지난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안산에서 작장을 다니다던 권양은 이번 사건에 안산현장지도자로 조국, 이 조국이 노동계와의 연계를 확대시키려했다는 치본의 의도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것이다. 생활에 아직 적응이 안돼 '바스룩 뚝뚝'하는 권양을 만나 소위 '반미구국전선'의 또다른 의미를 들어본다.

현제의 건강상태는 ▲=매 안좋은 상태입니다. 8·15범민족대회와 8·27구국사건때 계속 단식농성을 했었고 풀려나기까지 독방에 있었다. 보니 운동이 적었습니다. -계판과 구속에서 어떻게 깨웠는지.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성을 입증시켜내고 학생운동단위의 의도를 폭로해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1심과 11월 2일 1심2차를 거쳐 10월 22일 1심2차, 자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

다. -연행에서 수사받는 과정은 ▲=7월 10일 자취방에서 불법연행돼 안산노동계의 활동인물들을 데려 갔으셨습니다. 장안계우회, 자술서 반북해쓰기들의 수사를 받았지만 전자기 합동검은 등지에 대한 에 정을 깨뜨리려는 술책이었습니다.

▲=후배와 동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지켜내셨던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중에서 투쟁했던 것일 힘들었어요. 저들은 끊임없이 동지에 대한 불신을 불어 넣어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학생운동을 파탄시켜 하지도 하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

인터뷰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성을 입증시켜내고 학생운동단위의 의도를 폭로해 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1심과 11월 2일 1심2차를 거쳐 10월 22일 1심2차, 자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

다. -연행에서 수사받는 과정은 ▲=7월 10일 자취방에서 불법연행돼 안산노동계의 활동인물들을 데려 갔으셨습니다. 장안계우회, 자술서 반북해쓰기들의 수사를 받았지만 전자기 합동검은 등지에 대한 에 정을 깨뜨리려는 술책이었습니다.

▲=후배와 동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지켜내셨던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중에서 투쟁했던 것일 힘들었어요. 저들은 끊임없이 동지에 대한 불신을 불어 넣어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학생운동을 파탄시켜 하지도 하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

1991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모집

1991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및 학과
 - 가. 석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행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나. 박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행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2. 모집인원: 석사과정 000명, 박사과정 00명
3.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 ① 시험과목: ②영어 ③전공 ④수술교사
 - ② 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과목에서 출제하며, 수술교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 나. 박사학위과정
 - ① 시험과목: ②영어 ③전공(공통, 세부전공) ④제2외국어 ⑤수술교사
 - ② 시험내용: ②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공통 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수술교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④제2외국어 부과목: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한의학과, ⑤제2외국어 시험과목: 불어, 독어, 일어, 일어, 한문, 중국어 등 택일(단, 불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 국민윤리학과, 철(철학철학전공)학과에 한함)
4. 시험일정
 - 가. 원서교부: '90. 11. 14(수) - 11. 21(수)
 - 나. 원서접수 기간: '90. 11. 19(월) - 11. 21(수)
 -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
 -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0. 11. 30(금) 10:00 동국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주)275-3256, (고)267-8131~9(2253, 2254)

동국대학교 대학원

8만 동국인맥의 생생한 기록 동국인명록

8만 동국인의 성원을 한데 모은 '동국인명록 제6집'의 발간은 84년 동국사의 인맥을 새기는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현재 본회에서 배포중인 '동국인명록'은 1908년 명진학교에서 부터 89년 졸업생까지 대학별, 졸업년도 별로 직장·직위·전화번호등을 수록, 동문 상호간의 결속과 동국애를 다지는 가교로써 동문 결에 자 리할 것입니다.

- 구입안내 -
- 1. 대금: 원당 3만원(우송을 원할시에는 1,700원을 추가함)
- 2. 구입방법
 - 본회 사무국에서 직접 구입
 - 전국 은행 각지점 99년 창구에 대금 납입. 지로번호: 7500891
- * 지로를 보낼때 인명록 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주시면 지로통지서 도착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 연락처: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2-18(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1, 3992, 3993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학내기회

민족생존 위협하는 UR협상 반대한다

우리학교 학생들 분석에 들어가며 를 가지고 참여할 상당수가 아직까 수 있는 소모임이 지 총학생회를 자신의 조직으로 생각 하지 않고 90학년도 우리학교 학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들은 성원들로부터 그리 신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학생회의 간부가 파나 단과대학의 간부에 비해 더욱 그러했다고 학생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은 90학년도 학생회 운영에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가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몇몇 간부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회가 아닌 성원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학생회를 일구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또 학생들은 90학년도 학생회 간부들의 품성중 가장 큰 문제거리로 관성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한편, 학생들은 현재 소속과에 흥미

진단과모색 90년대 학생회

(9)보른-설문조사

간부얼굴과 이름 아는 것에 비해 대화경험 적어

먼저, 90학년도 소속 학생회 회장의 얼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학생회장의 경우 분석대상자 702명 중 493명(70.2%)이 알고 있었던 반면, 203명(28.9%)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응답자가 2명 있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경우는 523명(74.5%)이 안다에 180명(25.6%)이 모른다에 각각 답해 응답자들은 총학생회장 보다는 단과대학 회장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파과학생회의 경우에는 응답자중 불과 48명만이 불과, 대부분의 과 성원들은 자기과 학생회장 얼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90학년도 소속 학생회 회장의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얼굴인지도와 거의 비슷한 양태를 띠었다. 한편, 단과대학 회장의 경우에는 4백15명(59.1%)이 알았다에 282명(40.1%)이 몰랐다에 각각 답해, 1백여명의 응답자들은 단과대학 회장의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모르고 있었다. 이에관해 응답하지 않은 학생도 5명(0.7%) 있었다.

다음으로, 소속학생회 운영위원회 학생회 운영에 관해 대화를 나누어 분석이 있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이름과 얼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적게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분석대상자 7백2명중 5백3명(71.6%)이 없다고 답해, 지도자로서 여러가지를 감안한다면 지대리도, 아직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가 대중간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는 응답자중 2백7명(29.4%)이 대화경험이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총학생회 보다는 많은 수치를 차지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비교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파과학생회장의 경우에도 이름과 얼굴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응답자들의 대화경험은 다소 적었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응답자중 약 1백여명은 학생회운영위원회와 학생회 운영에 관해 대화를 나누어 분석이 없다고 답했다.

총학에서 파과 내려올 수록 운영원 및 집행부에 대한 신뢰높아

설문조사자들은 총학생회 보다는 단과대학회, 단과대학회 보다는 파과 학생회 운영위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학년도 학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에 대해 어느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총학생회의 경우, 매우 신뢰한다에 40명(5.7%)이, 조금 신뢰한다에 2백86명(40.7%)이 답한 반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에는 2백65명(38%) 1백6명(15%)이 각각 답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조금 많았다. 한편 이에관해 응답하지 않은 학생도 5명 있었다.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조금 많았다. 전체 분석대상자 7백2명중 44명(6.3%)이 매우 신뢰한다에, 조금신뢰한다에 3백46명(49%)이 각각 답했고, 2백13명(30%)이 거의 신뢰하지 않는데에 88명(13%)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총학생회와의 상대적 비교에 불과하다. 신뢰:비신뢰의 비율을 따져보면 6:4에 달해 아직도 학생회성원들과 학생회 간부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문항에 답하지 않은 학생도 11명(1.6%) 있었다. 파과학생회장의 경우 응답자중 1백56명(22%)과 3백70명(54%)이 각각 매우 신뢰한다, 조금신뢰한다에 답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문항에 답하지 않은 학생도 5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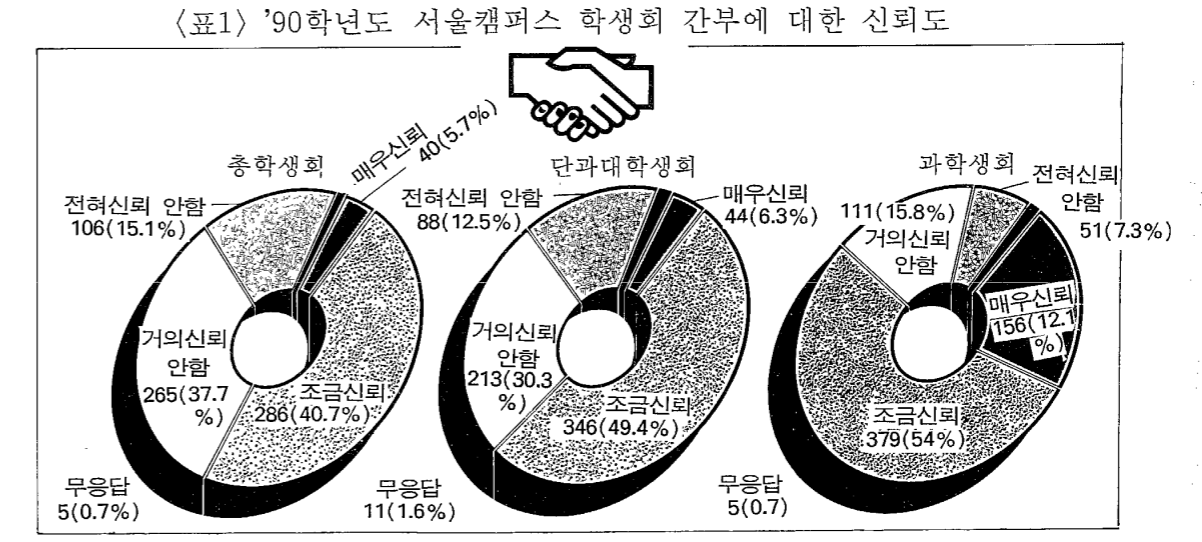
간부들의 품성중 가장 큰 문제는 관성적인 것

우리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생회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직접적인 통로를 거쳐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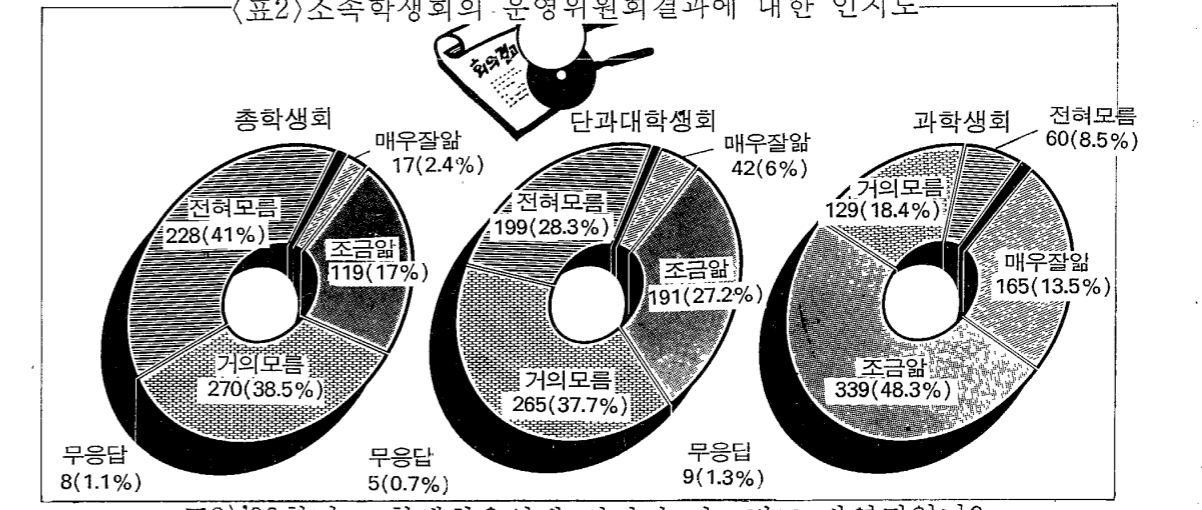
간부중심의 학생회운영풍토 조성절실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소모임은 전공학회-45% 과에서 총학으로 올라갈수록 간부에 대한 신뢰낮아 학자투 성과에 대해 불만족-91.1%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2백14명(30.5%)과 3백24명(46.2%)이 각각 통로가 없거나 이에 얘기하지 않는다는거나, 혹은 무응답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히 하겠다. 또 학생총회가 거의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 과 학생회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어떠한 통로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불과 1백명만이 총회에 답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학생회 운영위원을 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학생회의 경우 78명(11.1%), 단과대학학생회의 경우 1백83명(26%)이, 파과학생회의 경우 4백명(57%)이 이에 답했다. 그밖에 이용하는 통로로는 여론수렴함이 있었다. 총학생회의 경우는 응답자중 이란에 1백52명(21.7%)이, 단과대학의 경우 1백17명(16.7%)이, 파과 학생회 72명(10.3%)이 이에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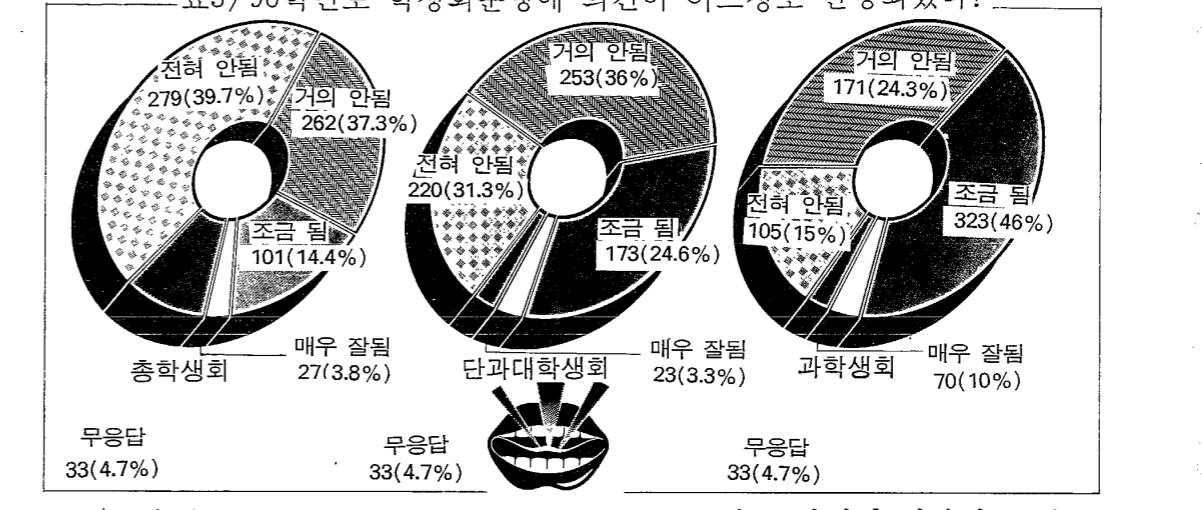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90학년도 총 운영에 있어 아직 성원들의 다다다다다다 이해와 요구에 대한 반영 정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자 7백2명중 5백71명(81.3%)이 거의안답했다 혹은 전혀안답했다고 대답.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단과대학 학생회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4백73명(67.4%)의 응답자들은 단과대학 학생회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파과학생회의 경우에도 운영결과에 대한 인지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응답자중 무려 2백76명(39.3%)이 이에대해 부정적응답을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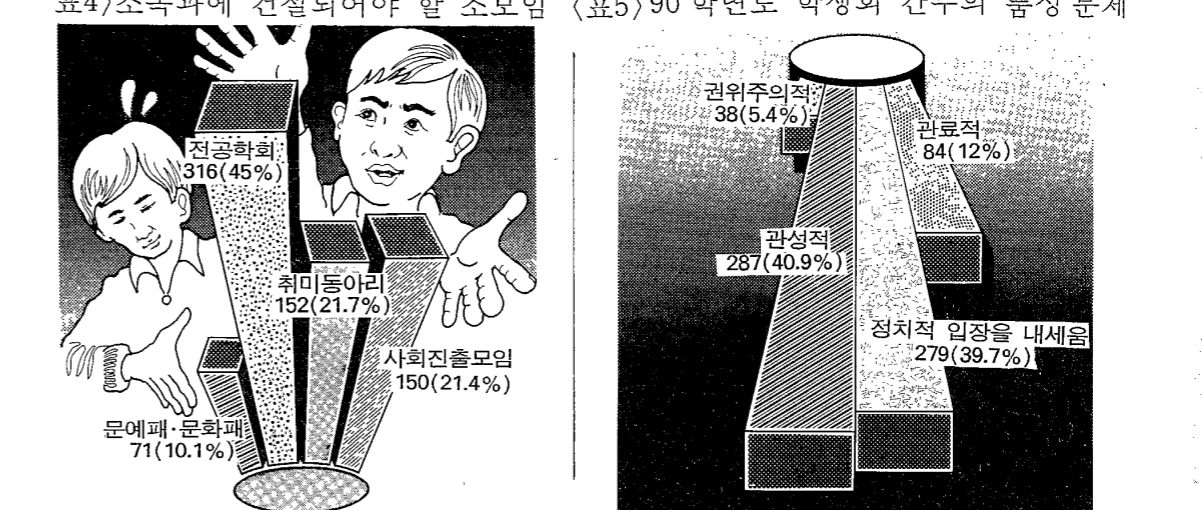


우리의 학자투성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34명(4.8%)이 긍정적으로, 6백40명(91.1%)이 부정적으로 각각 답변했다. 한편 무응답한 사람도 36명 있었다.

또, 올해의 학자투성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34명(4.8%)이 긍정적으로, 6백40명(91.1%)이 부정적으로 각각 답변했다. 한편 무응답한 사람도 36명 있었다.



설문응답자들은 또 90학년도 소속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대답에 있어 학생회 운영위원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즉 파과보다는 단과, 단과보다는 총학생회 운영위원들의 결과를 더 모르고 있었다. 총학생회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에 17명(2.4%), 조금알고 있다에 1백19명(17%)이 답한 반면, 2백70명(38.5%)과 2백88명(41%)은 각각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에 답해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았다. 한편, 무응답자도 8명 있었다. 단과대학학생회의 경우에는 8명 있었다. 단과대학학생회의 경우에는 매우 잘 알고 있다에 42명(6%)이, 조금 알고 있다에 1백91명(27.2%)이 거의 모른다에 2백65명(37.7%)이 전혀 모른다에 1백99명(28.3%)이 각각 답해, 총학생회 보다는 다소 나왔으나, 학생회운영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보았을 때, 이는 아직도 학생회에 간부중심의 음모적 사업작풍이 팽배해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항에 답변 안한 학생도 5명 있었다. 파과학생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과-총학생회에 비해 운영위원들의 결과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중 1백65명(23.5%)이 매우 잘 알고 있다에 3백39명(48.3%)이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불과 많아야 3백명도 성원이 체안되는 파에서 조차 1백29명(18.4%)과 88명(12.5%)이 각각 잘 모른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을 보면, 파과학생회 조차도 대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총회 의미 못살리고 있어

우리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생회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직접적인 통로를 거쳐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요구하는

주총장서리, 또는 오목원이 사장의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 혼재해 있음에도 2월말 지 현 총장서리체제가 유지되고 재단이 현재 총장선임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현총장서리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직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한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현 체제의 방기는 마땅히 짚는 한 직원의 격정스런 표정이 동양의 현실을 다스리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최윤옥 記者)

학내기회

민족생존 위협하는 UR협상 반대한다

기획 좌담

총학 입후보자에게 듣는다.

“학생 대중들과 함께 할 터”

▲사회=3월선거가 11월선거로 바뀌어 집에 따라 학생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92, 93년 권력재편기를 바라보며 91년은 격동기라고 예상합니다. 이속에서 우리가 건설해야 할 총학은 강철같은 기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건부끼리의 단결, 그이후에 일반학우와의 광범위한 단결이 지향해야 할 총학생회의 상이라고 봅니다. 이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출마했습니다.

▲정우식=이땅에 배를 물어야 하는 식민지조국의 청년학도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88년 학자부의 모범으로 본모습을 찾아 동학의 자긍심을 살리고 92-93년 민주연립정부의 대중적 토대확성을 위해서, 또한 학생들이 학자부와 조동투쟁을 거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지를 울바라 이끌어 내기위해 출마했습니다.

▲사회=22대 총학의 경우 올바른 지도와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좌우편향의 색깔이 사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아울러 학생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신원섭=지난 22대총학은 유례없는 학우들의 높은 지지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특히 5·18투쟁이나 유대민주총학생회투쟁에서 대중과 유대된 상공교섭위주의 편향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때 보다 총학의 단대순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례를 통한 단대의 의의를 수렴, 결집하기 보다는 총학 운위의 결과물을 홍보해주는 식의 순례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구조만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는 역할들을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5월총선거투쟁당시 정부위가 단위의 요구를 끌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파생된 이견을 중재, 집중시켜 내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인 형태로만 존재했던 위원회가 아니었나라는 지적, 즉 내용없는 위원회구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식=학생회는 학우들의 단결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학생회의 운영이 아닌 학생회가 있는데 명확히 결집해야 할 관점을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회운영을 자주·민주·통일의 원칙속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우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지 않고서 민주집중제를 강요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평상시 단위 체계속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고, 또한 학원별 학생회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유사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학원별 분원단위로 파르르분리된 전체 과학학생회 자주적인 토분의 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시형=학생회는 학우대중의 자체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운영원리는 지도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민주집중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난 총학을 비판해 보면 먼저 극도로 심각한 분파적 대립이 학생회 조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켰다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총학이 집행력을 수반한 권력구조가 아닌 단지 협의구조차원에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는 충분한 준비기간 없는 집행부 구성으로 기존의 학생회사업을 담습함으로써 학우대중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파악하고 수렴해내지 못함으로써 항상 학우대중에 근거한 힘있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우선 학생회에 있어서 일치단결의 사상을 전제로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합일점을 모색하고 결의된 내용은 구성원 모두가 힘있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강화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실을 강화하여 구체적 내용성을 확보해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투쟁이 대중에게서 유리되는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학생회가 무엇인가 이전에 청년학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기에 민감하고 대의실현을 위해 모험을 보여준 것이 우리 청년학생입니다. 이러한 전제속에서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지도의

내용과 결합하는 것 즉 자주적 요구와 민주적 지도와 통일적 집행이 학회를 보는 기본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22대 총학은 학우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학기 정기학생총회에서 정권미달이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23대 총학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공·교양학우의 소모임등 분원토의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부 역시도 대중적 품성을 갖추기위해 대중간부교육도 시급히 요청한다고 봅니다.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한 후 그다음의 올바른 중앙집권제를 위해 각 정파간 선전선동의 자유를 보장해내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한 행동의 원칙을 마련하고 사후의 상호 비판을 통해 올바른 의견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집중제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원정세를 바라보면 92-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민주주의의 내각제합의문이 유출되고 초대통령의 범죄와의 정정신포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제 계승은 유일한 카드로 인정을 바라보며 아울러 내년도에 예정되는 상황과 투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일단은 노태우정권이 제

나이가서 통일 단결 투쟁할 때만이 보수야당을 견인해 내고 미제와 노정권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단체들을 통일 단결하는 고리로서 장기집권저지 내각제 개헌 반대의 관점을 견지하고 이러한 단체를 망라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드시 세우거나 민주대연합의 기초를 닦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웅=권력재편기를 앞두고 각 계급계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므로 투쟁전선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전선으로 묶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약하나마 흩어져있는 계급적응을 하나의 통선으로 통일하여 중추적 역할을 갖고 민중이 주도하는

당이 설립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43계 민중당 지구당에 참여했던 사람은 각 계급계승을 망라하여 실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을 위한 유력한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원섭=민중당이 갖는 데의는 인정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내 보혁구도속에서 민중당이 합법단위로 활동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배세력에게 반항, 비합당제를 탄압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중당자체도 간고한 보혁구도속에서 개방화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올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변동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열기 또한

어떤 자료에 따르면 국군을 십만명 감축해도, 북부기간을 줄여도 별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일논의를 고안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생명의 강화건설과 함께 통일학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는 주제철학을 연구하고 사회학은 북한 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의 통일학회의 자주교류투쟁의 일환으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우리민족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UR협상에 관한 입장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정우식=12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정말로 농민뿐 아니라 한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UR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사립회사는 제국주의국가의 본질로 제 3세계를 끌고 가기 위한 제 3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이라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침략 및 UR협상저지대책위를 시급히 건설함으로써 단위로부터의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전농대회와 결합하여 투쟁하고 각 분야별 논의를 UR협상저지 대책위와 결합시킴으로써 투쟁은 중추적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시형=UR협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내부의 축적 지지기반이 약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민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을 뿐더러 협상분야가 광범위하게 때문에 그 피해여는 한국 전체민중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UR협상으로 당장 유리한 입장이 몇 개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세력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국외의 어떤 산업도 지렁경제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88년 이후 진행된 학원자주화의 모범으로 자부해 왔던 본교가 22대 총학을 거치면서 비합당된 모습보다는 퇴보했다는 학우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총학생회투쟁으로 대표되는 학자부를 바라보며 학자부 운영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민중을 보는 관점을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88년 이후 학자부 3년을 맞이하면서 총학생회를 둘러싼 제 계급계승의 민화유적자들은 학원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권력관계속에서 밀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투쟁과 인해 권력계승·노동·농민운동투쟁에 이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학자부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 학교에도 민주총장이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제기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88년에 생취했던 총학생회 제도안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합의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3차연석회의의 제도는 있었지만 그 한계성으로 인해 민주총학을 위한 객관적 상황이 허락치 않았다는 점과 가장 커다란 문제인 동학내에는 민주총장이야고 주대할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학자부 전개방향을 한전주의를 지양하고 구체적 영역속에서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는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91년의 학자부는 단결적이지 아닌 긴밀한 연합속에서 지체 미테를 통해 뿌리 뽑는 과정으로 교과위를 중심으로 한 학부단위의 요구를 열매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원섭=학자부는 학원내의 아닌 사회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자주적 권리와 인적·물적구조에 따른 지역생명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학생회간부에 대한 학자부 교양적임이 필요하고 위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며 작은 실리들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우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자제로 투쟁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22대 총학이 내걸었던 과학적학자부, 대인있는 학자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학자부의 근본적인 시작은 ‘동국사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학회강화를 통한 교과위를 적극지원하여 강의실에서부터 학자부라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문제, 등록금투쟁, 제안혁신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바쁘신 시간 중에도 좌담회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내용을 읽은 독자에게 어느정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양호보건의 공화 ‘동국사망’이라는 기본적 대의에 공명한 선거를 치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정리=남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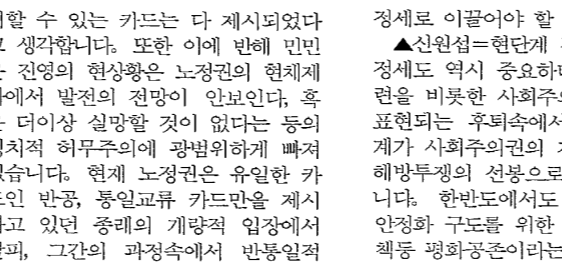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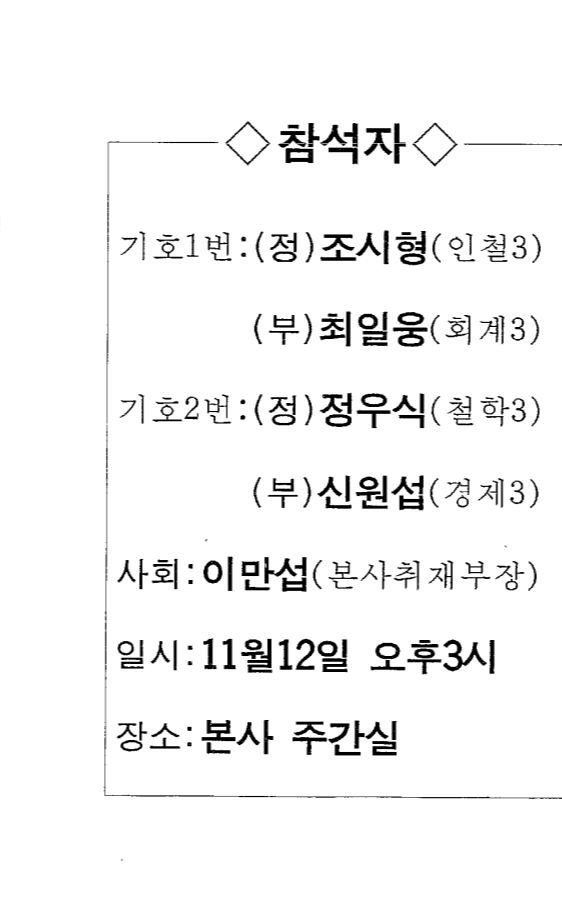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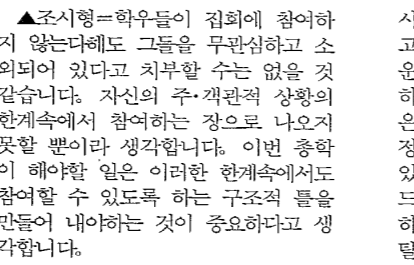
조시형 (인철 3)

최일웅 (회계 3)

기호 1번

“주체역량을 고려해 내각제 반대단체를 망라한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을 건설하고 학번학생회·전공학회·소모임을 통한 학생참여공간 늘릴터”

기호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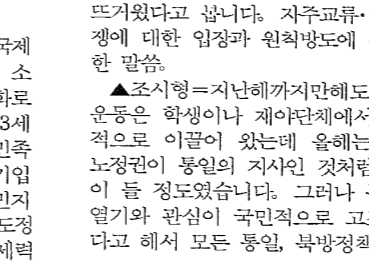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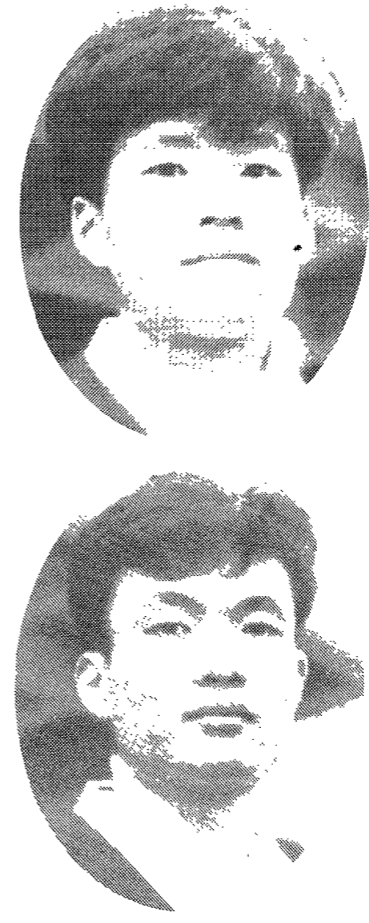


참석자

- 기호1번:(정)조시형(인철3)
(부)최일웅(회계3)
- 기호2번:(정)정우식(철학3)
(부)신원섭(경제3)
- 사회:이만섭(본사취재부장)
- 일시:11월12일 오후3시
- 장소:본사 주간실

정우식 (철학 3)

신원섭 (경제 3)



▲조시형=학우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은 무관심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객관적 상황의 한계속에서 참여하는 장으로 나오지 못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학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한계속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틀을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반해 민중운의 진영은 노경권의 현재체제 하에서 민중의 전망이 안보인듯, 혹은 더이상 실현할 것이 없다는 등의 정치적 허무주의에 광범위하게 빠져 있습니다. 현재 노경권은 유일한 카드로 인정을 바라보며 아울러 내년도에 예정되는 상황과 투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신원섭=원정세에서 국제정세도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개방화로 표현되는 주위속에서 이제는 제3세계가 사회주의권의 지도로부터 민족해방투쟁의 선봉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미제의 식민지안정화 구도를 위한 두개의 한반도정착 정책 평화공존이라는 것과 집권세력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주교류·방북투쟁에 대한 입장과 원칙방도에 관해서 한 말씀.

▲조시형=지난해까지만해도 통일운동은 학생이나 계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올해는 마치 학생회가 통일의 지사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열기와 관심이 국민적으로 고조되었다고 해서 모든 통일, 북방정책을 중

▲최일웅=학생회운영에 있어서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구현해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하나의 일치점을 결의하고 일단 정책화되면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반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사후평가작업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집중제의 주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사회=학생회 운영에 있어 원칙으로 제기된 민주집중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시행되어야 올바른 학생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정우식=민주집중제가 학생회운영에 있어 올바른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집중제가 잘못 시행될 경우 자칫 형식적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에 기반한 요구와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면 형식적 수준으로 전락하고 간부또한 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민주집중제의 바른 실현을 위해 중요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우의 자주적 참여를 보장해주는 실제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시형=민주집중제의 본래의 의미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반목적일수 있는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기 때문에 기존의 이러한 단체들은 대중적 토대를 바탕으로 강화해

의 장기집권 구도가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미제의 식민지안정화구도와 노경권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내각제 개헌과 두개의 한국연립조직정착은 그들로서 반드시 지나야 할 길목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이것들을 동시에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 절대 요청된다고 봅니다.

▲사회=영광·함평로결선결과 나 타난 민중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정우식=민중당이 민중에게 희망이 되고 무기가 되고 힘이되기 위해서는 민중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자주적 대중조직이 힘있게 체제화되어 있지 못하고 더욱이 통선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식민지 조국 현실속에서는 전민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민중의 요구에 의해 제기되지 못한 진보정당은 남로당등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붕괴되고 만다는 결론이 있고 전민중이 통일 단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중당은 오히려 단결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식=당연히 민중권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민중의 주체역량의 평가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주적 계급투쟁을 대중조직의 준비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노협, 전농, 전대협등을 살펴보면 조직화율이 10%이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기 때문에 기존의 이러한 단체들은 대중적 토대를 바탕으로 강화해

정적으로 일반화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노경권의 통일정책속에서 반동일적 음모를 폭로해내고 명확한 통일운동의 방향을 정립하는 현안 어떠한 내용도 갖고 통일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운동을 보면 서 나뉘므로 성과를 인정하지만 ‘자주교류’투쟁에 매몰되어 그것이 목적으로 형식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교류의 내용인 반공이베울로기를 혁파하고 노경권의 반동일성, 반민중성을 폭로해내어 노경권과도 투쟁의 유효한 전선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우식=올해는 통일의 주체가 노경권인지 역임받은 민중인지 불명확했다고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부분인 비핵, 미군철수, 급속등 발전적인 방향을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시형=87년 이후 투쟁의 영역이 급속히 확장에 따라 국화역시도 투쟁의 장으로 설정하게 된 것과 민중의 계급소리를 광범적인 외곽공간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민중

학내기회

민족생존 위협하는 UR협상 반대한다

기획 좌담

총학 입후보자에 게 듣는다.

“학생 대중들과 함께 할 터”

▲사회=3월선거가 11월선거로 바뀌어 집에 따라 학생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92, 93년 권력재편기를 바라보며 91년은 격동기라고 예상합니다. 이속에서 우리가 건설해야 할 총학은 강철같은 기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건부끼리의 단결, 그이후에 일반학우와의 광범위한 단결이 지향해야 할 총학생태의 상이라고 봅니다. 이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출마했습니다.

▲정우식=이땅에 배를 몰아야 하는 식민지조국의 청년학도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해 있습니다. 88년 학자부의 모범으로 본모습을 찾아 동학의 자긍심을 살리고 92-93년 민주연립정부의 대중적 토대확성을 위해서, 또한 학생들이 학자부와 조동투쟁을 거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지를 울바라 이끌어 내기위해 출마했습니다.

▲사회=22대 총학의 경우 올바른 지도와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좌우편향의 색깔이 사업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아울러 학생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정우식=학평회는 학우들의 단결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학생회의 운영이 아닌 평상시 단위의 체계속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담아내야 하고, 또한 학원별 학생회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유사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학원별 분원단위로 파르르히만 전체 과학학생회가 자주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시형=학생회는 학우대중의 자체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운영원리는 지도와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민주집중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난 총학을 비판해 보면 먼저 극도로 심각한 분파적 대립이 학생회 조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켰다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총학이 집행력을 수반한 권력구조가 아닌 단지 협의구조차원에 머물렀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는 충분한 준비기간 없는 집행부 구성으로 기존의 학생회사업을 담담함으로서 학우대중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파악하고 수렴해내지 못함으로써 항상 학우대중에 근거한 힘있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우선 학생회에 있어서 일치단결의 사상을 전제로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합일점을 모색하고 결의된 내용은 구성원 모두가 힘있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강화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실을 강화하여 구체적 내용성을 확보해 집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지투쟁이 대중에게서 유리되는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학생회가 무엇인가 이전에 청년학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에 민감하고 대의실현을 위해 모범을 보여준 것이 우리 청년학생입니다.

이러한 전체속에서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지도의

내용과 결합하는 것 즉 자주적 요구와 민주적 지도와 통일적 집행이 학우들의 기본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22대 총학은 학우들이 무얼 요구하는지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학기 정기학생총회에서 정권미달이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23대 총학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많은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공·교양학생의 소모임등 분원단위를 체계화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부 역시도 대중적 품성을 갖추기위해 대중간부교육도 시급히 요청한다고 봅니다.

학우들의 의사를 수렴한 후 그다음의 올바른 중앙집권제를 위해 각 정파간 선전선동의 자유를 보장해내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한 행동의 원칙을 마련하고 사후의 상호 비판을 통해 올바른 의견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집중제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원정세를 바라보면 92-93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민주주의의 내각제하의 문이 유출되고 초대통령의 범죄와의 정정신포등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제 계승은 유일한 카드로 인정을 바라보며 아울러 내년도에 예정되는 상황과 투쟁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일단은 노태우정권이 제

나이가서 통일 단결 투쟁할 때만이 보수야당을 견인해 내고 미제와 노정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단체들을 통일 단결하는 고리로서 장기집권저지 내각제 개헌 반대의 관점을 견지하고 이러한 단체를 망라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드시 세우거나 민주대연합의 기초를 닦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웅=권력재편기를 앞두고 각 계급계승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요 투쟁전선에서 나올 것이요 이것을 어떤 전술로 묶어 나갈것인가가 중요한데 미약하나마 흠여져있는 계층적 하나를 통틀어 통일하여 중추적 역할을 갖고 민중이 주도하는

당이 설립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43계 민주당 지부에 참여했던 사람은 각 계급계승을 망라하여 실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을 위한 유력한 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원섭=민주당이 갖는 데의는 인정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내 보혁구도속에서 민주당이 합법단위로 활동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배세력에게 반항, 비합당제를 탄압하게 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중당자체도 간고한 보혁구도속에서 개방화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올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변동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열기 또한

어떤 자료에 따르면 국군을 십만명 감축해도, 북부기간을 줄여도 별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일논의를 고안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생태의 강화건설과 함께 통일학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는 주제철학을 연구하고 사회학은 북한 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의 통일학회는 자주교류투쟁의 일환으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우리민족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UR협상에 관한 입장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말씀해 주시죠.

▲정우식=12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있는 UR협상은 정말로 농민뿐 아니라 한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UR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사립회사는 제국주의국가의 본질로 제3세계를 끌고 가는 지메하려는 제3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이라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침략 및 UR협상저지대책위를 시급히 건설함으로써 단위로부터의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 전동대회와 결합하여 투쟁하고 각 분야별 논의를 UR협상저지 대책위와 결합시킴으로써 투쟁은 중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시형=UR협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내부의 축적 지지기반이 약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민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을 뿐더러 협상분야가 광범위하게 때문에 그 피해여는 한국 전체민중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UR협상으로 당장 유리한 입장이 몇 개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세력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국외의 어떤 산업도 지렁경제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88년 이후 진행된 학원자주화의 모범으로 자부해 왔던 본교가 22대 총학을 거치면서 비합당한 모습보다는 퇴보했다는 학우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총학생회투쟁으로 대표되는 학자부를 바라보며 학자부 운영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민중을 보는 관점을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88년 이후 학자부 3년을 맞이하면서 총학생회를 둘러싼 제 계급계승의 민화유적자들은 학원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권력관계속에서 밀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률과로 인해 권력적 노동·농민운동투쟁에 이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학자부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 학교에도 민주총장이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제기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88년에 생취했던 총학생회 제도안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합의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3차연석회의의 제도는 있었지만 그 한계성으로 인해 민주총장을 위한 객관적 상황이 허락치 않았다는 점과 가장 커다란 문제인 동학내에는 민주총장이라고 주대할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학자부 전개방향을 한전주의를 지양하고 구체적 영역속에서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는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91년의 학자부는 단결적이지 아닌 긴밀한 인일합속에서 지메 이태를 물려 뿌리 뽑는 과정으로 교과위를 중심으로 한 학부단위의 요구를 열매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원섭=학자부는 학원내 아닌 사회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자주적 권리와 인적·물적구조에 따른 지역생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학생회투쟁에 대한 학자부 교양적 접근이 필요하고 위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며 작은 실리들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우들 역시 일상생활속에서 주어진 자제로 투쟁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22대 총학이 내걸었던 과학적학자부, 대인있는 학자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학자부의 근본적인 시작은 ‘동국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학회강화를 통한 교과위를 적극지원하여 강의실에서부터 학자부라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문제, 등록금투쟁, 제안혁신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바쁘신 시간 중에도 좌담회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내용을 읽은 독자에게 어느정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양호보전영 공화 ‘동국사랑’이라는 기본적 대의에 공명한 선거를 치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정리=남은 기자)

조시형 (인철 3)

최일웅 (회계 3)

기호 1 번

“국민연합강화로 민주주의의 민주대연합을 건설하고 학생대표자회의강화로 학우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민주 집중제 구현할터”

“주체역량을 고려해 내각제 반대단체를 망라한 민주주의의 민주대연합을 건설하고 학번학생회·전공학회·소모임을 통한 학생참여공간 늘릴터”

기호 2 번

▲최일웅=학생회운영에 있어서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구현해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서로 비판하는 가운데 하나의 일치점을 결의하고 일단 정책화 되면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반기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사후평가작업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집중제의 주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사회=학생회 운영에 있어 원칙으로 제기된 민주집중제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시행되어야 올바른 학생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우식=민주집중제가 학생회운영에 있어 올바른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집중제가 잘못 실행이 될 경우 자칫 형식적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에 기반한 요구와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면 형식적 수준으로 전락하고 간부또한 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민주집중제의 바른 실행을 위해 중요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학우의 자주적 참여를 보장해주는 실제적인 틀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시형=민주집중제의 본래의 의미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반목적일것임을 이룬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민주주의의 의지 운영원리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시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반해 민중운의 진영은 노정권의 현재체제 하에서 전진의 전망이 안보인다. 혹은 더이상 실행할 것이 없다는 등의 정치적 허무주의에 광범위하게 빠져 있습니다. 현재 노정권은 유일한 카드로 인정을 바라보며 아울러 내년도에 예정되는 상황과 투쟁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올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변동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열기 또한 어떤 자료에 따르면 국군을 십만명 감축해도, 북부기간을 줄여도 별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일논의를 고안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생태의 강화건설과 함께 통일학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과는 주제철학을 연구하고 사회학은 북한 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식의 통일학회는 자주교류투쟁의 일환으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우식=12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있는 UR협상은 정말로 농민뿐 아니라 한민족의 운명을 백척간두에 올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UR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사립회사는 제국주의국가의 본질로 제3세계를 끌고 가는 지메하려는 제3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이라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침략 및 UR협상저지대책위를 시급히 건설함으로써 단위로부터의 논의를 통해 오는 12월 전동대회와 결합하여 투쟁하고 각 분야별 논의를 UR협상저지 대책위와 결합시킴으로써 투쟁은 중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시형=UR협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내부의 축적 지지기반이 약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민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을 뿐더러 협상분야가 광범위하게 때문에 그 피해여는 한국 전체민중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UR협상으로 당장 유리한 입장이 몇 개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세력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국외의 어떤 산업도 지렁경제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88년 이후 진행된 학원자주화의 모범으로 자부해 왔던 본교가 22대 총학을 거치면서 비합당한 모습보다는 퇴보했다는 학우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총학생회투쟁으로 대표되는 학자부를 바라보며 학자부 운영의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민중을 보는 관점을 말씀해 주시죠.

▲조시형=88년 이후 학자부 3년을 맞이하면서 총학생회를 둘러싼 제 계급계승의 민화유적자들은 학원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권력관계속에서 밀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률과로 인해 권력적 노동·농민운동투쟁에 이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학자부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우식=88년 이후 학자부 3년을 맞이하면서 총학생회를 둘러싼 제 계급계승의 민화유적자들은 학원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권력관계속에서 밀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률과로 인해 권력적 노동·농민운동투쟁에 이어 학교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학자부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 학교에도 민주총장이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제기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88년에 생취했던 총학생회 제도안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합의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3차연석회의의 제도는 있었지만 그 한계성으로 인해 민주총장을 위한 객관적 상황이 허락치 않았다는 점과 가장 커다란 문제인 동학내에는 민주총장이라고 주대할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학자부 전개방향을 한전주의를 지양하고 구체적 영역속에서 하나하나 쟁취해 나가는 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91년의 학자부는 단결적이지 아닌 긴밀한 인일합속에서 지메 이태를 물려 뿌리 뽑는 과정으로 교과위를 중심으로 한 학부단위의 요구를 열매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원섭=학자부는 학원내 아닌 사회전반적인 체제에 대한 자주적 권리와 인적·물적구조에 따른 지역생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학생회투쟁에 대한 학자부 교양적 접근이 필요하고 위의 원칙들을 철저히 지켜나가며 작은 실리들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우들 역시 일상생활속에서 주어진 자제로 투쟁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식=22대 총학이 내걸었던 과학적학자부, 대인있는 학자부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학자부의 근본적인 시작은 ‘동국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학회강화를 통한 교과위를 적극지원하여 강의실에서부터 학자부라는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문제, 등록금투쟁, 제안혁신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바쁘신 시간 중에도 좌담회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내용을 읽은 독자에게 어느정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양호보전영 공화 ‘동국사랑’이라는 기본적 대의에 공명한 선거를 치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정리=남은 기자)

교양문화

민족생존 위협하는 UR협상 반대한다

전형의 창조는 진실과 감동을 주는 열쇠

문예에 이르러 더욱 많은 문예는 생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쟁들이 좀더 독자대중과 함께 창조적 문예로 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논쟁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적 의식을 강조한 '민중적 민족문학론'과 전위로 부터의 지도를 강조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논리가 그 주된 내용이다.

이 논리는 곧바로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서 인식이 먼저인가 혹은 체험이 우선되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 파악(인식)과 체험을 사실상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논쟁은 이어 '문예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벌이게 되는데 이전의 '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89년에 이르러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주장하는 '노동해방문학론'을 제창, 문예운동의 주체를 노동자계급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위와 대중' '자발성과 의식성'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를 취하면서 대중적 기초의 확보를 강조한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논의들속에서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진실되고 감동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적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예운동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



'과업'

90년도에 있어 문학계에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쟁점소설의 잇따른 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회 전제비문학상 수상작인 '과업'은 최초의 노동쟁점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형제작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파업투쟁을 그린 이번 '과업'은 전체적으로 호부자제

'함께 가장 먼저'

있다는 칭찬을 받는다.

한편 이 작품에서 나타난 노동자대중에 관해 주인공 순이의 경우 대중의 이익에 근거해서 대중의 생활과 논리에 기반해서 운동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앞세운 나머지 노동자들을 핏줄이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대중을 지도할과 동시에 대중에게 배워야 한다는 문제가 이 작품의 주조를 이루며 '노동자들의 건강권' 생

'철의기지'

활이나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바늘판지'의 경우 빈민의 생존권투쟁에 있어 발생하는 파편적 현상들의 혼란스런 나열로 인해 소설의 전체성이 미흡하고, '철기'의 경우 철거민들의 싸움의 기록에 급급한 나머지 리얼리즘이 요구하는 총체적 사회묘사와 인물들의 상호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철의기지'는 현대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그리면서

올한해 노동장편소설-보고문학 활성화 돋보여 짚은 논쟁, 문학적실천에 기여했는지 의문

은 이른바 과학성만큼 작품과 문학적 실천에 눈을 뜨게 하면서 이를 위한 창작방법이 논의되어왔다.

이념을 통해 현실을 보려는 경향, 사회과학의 공부나만 쫓아가는 경향을 극복하고 당파성을 실천하고 작품화하려는 것 또한 예술성의 부족한 면을 배후로, 이념을 현실속에서 문학적 형상화하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문예논쟁을 어떻게 문학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르러 '전향론'이 대두된다.

이렇듯 민족적·계급적관점을 문예계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갖게된 '민중문학론'이 80년대 중반 '민중적 민족문학론' '민주주의 민족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 '노동해방문학론' '민중해방문학론' 등으로 정립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학당당주체, 작품의 양상, 문화이론등 문화전체의 변모를 가져온 '변혁운동이념의 수용'은 '민중주의의 문예운동'을 표방하게 되지만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 두가지 논리의 대립이 생겨났다.

즉 '민중주의의 문예운동'이 되기위해 민중 스스로의 자생

가 거의 의식적인, 흥기가 현장에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민주노조가 결성되기 까지, 민주노조 건설이 진영이라는 사람의 분신에 의해 극적으로 결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기계적·상투적, 즉 작가의 작위성·의식성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문학적 자체로서의 감동을 주기엔 미흡하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소설속의 현실이 역사의 합법적 진전에 따라, 객관적 묘사에 의해 그려져야 하는데 작가의 주관적의도로 묘사의 불철저성, 추상적 묘사의 사용등은 사실주의기법에 충실치 못했다고 한다.

'함께가자 우리'

5·3인천사건때부터 87년 대투쟁까지의 전위노동자 선도적 투쟁, 그리고 대중화투쟁의 대중관을 대비하면서 노동자들의 성장과정을 그린 이 작품에 대해 1부와 2부의 활동가들의 노동운동이론이나 활동방식을 단 순비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진출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전의 노동소설이 교과서적 교훈으로 가득차고 있는 것과 달리 최소한 남아있는 우리 주년의 혼란 분단 통일논의에서, 실존해버린 인

물화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평도 받는다.

'보고문학'

도시민과 철거민들의 투쟁을 다룬 '바늘판지' '철기' 현대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그린 '철의기지' 등 보고문학의 소설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 작품들이 일종의 보고문학의 소설작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다시말하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단편적인 흐름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머지 현실속에 작용하는 역사의 선함과 민중들(노동인물)간의 살아있는 관계로

각각마다 주요인물을 통해 투쟁과정에 대한 보고와 상황평가를 내리게 하는 소설적 장치들을 도입, 각 인물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에서 그들의 의식의 성장과정, 사회적 상황과의 총체적 연관등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문학의 발전가능성을 엿보이게 해 주고 있다.

또한 보고문학이라 한다면 투쟁은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인물과 사건들을 사회전체의 본질적흐름에 유기적으로 맞추어야 하며, 그속에서 전형적 상황·인물의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부)

문화단시

연우 '봉숭아 꽃말' 공연
최형인 교수(한양대 연영과)의 1인극 "봉숭아 꽃말"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극단 연우무대에 의해 공연된다.

이 작품은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시작된 어느 가정의 근대사를 엮은 것으로 사상만 남아있는 우리 주년의 혼란 분단 통일논의에서, 실존해버린 인

간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연극 '품바' 공연
극단 '가가'는 연극 '품바'를 오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대하로극장에서 공연한다.

'품바'는 일제 암박의 식민지 시대부터 자유당 말기까지 전국을 떠돌며 살았던 한 각설이 페 대장의 일대기로서 각설이 타령이 안고 있는 한과 해학을 빌드 줄게 조명한 모노드라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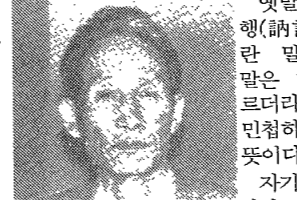
한편, 극단 '가가'는 지난 81년 '품바'의 창작연예 10년동안 꾸준히 공연하고 있다.

탈해 천강에

고난을 극복하는 勤勉

李乘東

(농과대학교수·농업발전학)



옛말에 늘어난 행(納言)이 행(納言)이라 한 말이 있다.

말은 다소 서투르더라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는 뜻이다.

자기도 모르는 말만 제멋대로 하고 싶어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행동을 민첩하게, 말은 일에 부지런히 열중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병약하거나, 두뇌가 못미처니까해서 많은 일에 열중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일이 많다. 그것은 게으름 사람의 평범하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의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상 입증된 예가 많다.

연구나 학업에 몰두해서 정열을 불태우고 분발하면 살아가는 기적이 기이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발전하고자하는 자기의지만 있으면 안될 일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타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어느곳에 갔다놓아도 쓸모없는 재부일 수밖에 없다.

흔히 소극적, 이기적, 향락적 그리고 방종적인 사람일수록 평계가 많고 자신의 게으름은 반성하지 않고 남의 탓만 성토하는 경우를 본다.

학자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원망한다. 이런사람은 대장부가 아니라 말해 주고 싶다.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약조건에서도 자신을 제적해서 이겨냈고 솟아났다. 물론 우리주년이 그리고 우리사회환경이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아니다.

불편한 점이 많고 부족함전도 허다하다.

이것을 내가 고쳐나가고 내가 부지런히 함으로써 메워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쳐먹으면 오죽 좋을까.

조선시대 이율곡선생은 가난하고 병약한 몸으로 49살까지 사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겼다. 실학의 그것은 생활철학의 그것이다. 이조판서까지 오르면서 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다. 임제관을 만나서 유성봉 당시 영의정은 생전의 율곡선생 말씀을 안들은 것을 크게 반성하고 전란수습에 온 힘을 다했다고 전한다.

우리주년에는 금전에 탐욕내고 명예만 탐내는 그릇이 적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또 그릇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런것을 탐내고 자기노력은 덜하려고 든다. 우리는 이런 위인을 배워서 안될것이다.

철사 어떤 비운이나 곤경에 부딪쳐도 실패를 믿고 일어서는 임명(立命)의 인제가 되어야 하겠다. 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자연계의 동물들도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팔팔하게 젊은 우리에게 무엇이 겁이나 두려워 할 것이 있겠는가.

인명은 수명이 아니고 내가 개척해서 이루어 세우는 임명이다. 그러자면 근면해야 되겠다. 주어진 책임에 열중하다보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배어지고 일종의 신앙에 가까운 성취욕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갖고있는 정열을 분산시켜, 우리가 갖는 잠재능으로 나를 건설하고 나를 다시 생산하는데 투입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경, 내나라를 혼란과 무질서에서 다시 일으키는게 소금이 되자.

옛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인용하자. 근면은 나를 체질해서 적게는 내집안과 크게는 내사회를 번영으로 이끄는 기본(勤勉自健成家之本)이라 했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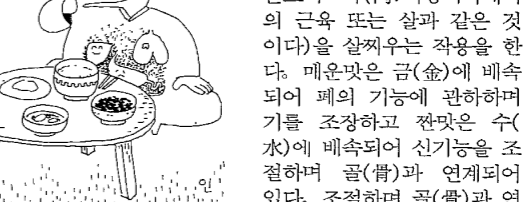
맛과 오장(五臟)의 관계

金甲成
(한의과대학 조교수·중국 한방병원 침구과 과장)

동의보감 신형(身形)편에 중국 당(唐)대의 명의 손진인(孫眞人)의 말을 인용하여 "의사는 병을 진찰하여 그 근원을 파악한후 약을 투여하기 이전에 식이요법으로 병을 조절하여야 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약을 투여하여 병을 치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약의 독성과 함께 음식 신체의 중요성을 양생(養生)의 법도로 삼았음을 알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음식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약(藥) 이상의 효과를 보지만 잘못 섭취하면 독이 나 다름이 없다. 옛 선인들은 도가(道家)적인 양생 방법에서 호르몬과 함께 음식물의 섭취를 매우 중요시 하였으나 음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 까지 끊임없이 의부(後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음식에는 기(氣)와 함께 미(味) 즉 맛을 소중하고 있으니 동양의 학에서는 이미 이전전제 음식의 맛을 크게 다스기(五味)로 구분하여 오행(五

臟)의 기능과 혈(血)을 길러 주고, 단맛(甘味)은 토(土)에 배속되어 소화기능을 북돋으며 육(肉)과 영양학에서의 근육 또는 살과 같은 것이다)을 살찌우는 작용을 한다. 매운맛은 금(金)에 배속되어 폐의 기능에 관하여며 기름 조장하고 짠맛은 수(水)에 배속되어 신기능을 조절하며 풀(靑)과 연겨되어 있다. 조절하며 풀(靑)과 연겨되어 있다. 물론 질병치료에서는 식이요법상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원리(五臟:肝·心·脾·肺·腎)에 연계하여 각 장기기능(臟器機能)의 길항적(拮抗)적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미(五味)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맛으로 신맛은 목(木)에 배속되어 한창에 들어가서 간기능을 보충하고 근(筋)동맥의학에서 筋이란 서양의학의 인대의 작용과 유사하다)을 튼튼히 하는 작용이 있다. 쓴맛은 화(火)에 배속되어 심장에 들어가 보심(補心)의 기능과 혈(血)을 길러 주고, 단맛(甘味)은 토(土)에 배속되어 소화기능을 북돋으며 육(肉)과 영양학에서의 근육 또는 살과 같은 것이다)을 살찌우는 작용을 한다. 매운맛은 금(金)에 배속되어 폐의 기능에 관하여며 기름 조장하고 짠맛은 수(水)에 배속되어 신기능을 조절하며 풀(靑)과 연겨되어 있다. 조절하며 풀(靑)과 연겨되어 있다. 물론 질병치료에서는 식이요법상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원리(五臟:肝·心·脾·肺·腎)에 연계하여 각 장기기능(臟器機能)의 길항적(拮抗)적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미(五味)란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긍지 ④ 수영동들

무형문화재 제 43호로 부산 수영동에서 보존되고 있는 탈춤.

화려한 길군악을 시작으로 양반마당, 영남마당, 영감합마당, 그리고 사자춤마당으로 구성된 풍자와 해학이동백 담근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백구야 훨훨 나지를 마라

곳거리 장단에 어깨춤을 추어보자
수양반은 의젓하게, 차양반은 노련하게,
중가도령 가블대며 탈판을 북돋우네,
수양반 사선자이 풍물치고 춤을 추고
말뚝이 마름잡고 거지양반 회롱할 제
맞던일 뽀인 감정 훌훌 털어버려,
자진모리 힘찬가락 우리네 마음세,
다함께 어깨걸고 공동합창 노래하세,
'소인, 말뚝이 문안요!'

탈춤이란 민중 공동체식의 소산이었습니다. 민중사를 엮어는 대다수 민중의 뜻과 꿈의 결집이 독창적 극형식에 의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전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승이란 단순히 어제의 것을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의변전을 드러내어 새로운 역사발전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일을 이끌어갈 오늘의 젊은이들이 앞장서 우리의 놀이문화화 전승해갈 때 우리의 고유문화가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긍지를 느낍니다.



생활문화

민족생존 위협하는 UR협상 반대한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은
담배연기 자욱한 자취방
때 묻은 이불 속에서
밤새 '어느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읽으면서였지요

당신을 다음으로 만난 것은
가을별이 겨우 비껴드는
좁고 칙칙한 어느 학생회실에서
가투 나가기 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였지요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은
이른 추위에도 오가리처럼 조그라진
남부고등공민학교 마지막 노동법 시간
"나의 죽음을 헛되이..."
책을 읽다 하나들 터져나오는 울음과
들쭉이는 어깨의 물결
어린 노동자들의 속에서였지요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보회를 만들었다
작은 승리를 준비하는 어느 철야의 밤에
당신이 삼동권목회를 꾸렸듯
패배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날에
당신이 몸에 신나를 바르듯
화염빛 찬연히 터뜨릴 거리를 향해
성령성금 나서는 길에
어깨걸며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생명없는 시커먼 숲덩이가 아니라
향쟁의 세월을 스무구구마나 넘겨오던
살기름 지글지글 끓이며
활활 불타오르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3일로 전태일열사 분신 20주기를 맞이 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 불꽃속에 산화해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우리의 가슴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번 시와 그림은 국문과 백승권군(동국문학회), 미술과 백창호군(복식)의 도움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집자>



최경인 (22)



연재공트 '화염병과 얼굴'

작은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투쟁을 그린 공트 '화염병과 얼굴'을 연재합니다. 이들은 국문과 4학년 이현상군이 투고했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신문과 각종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서서히 응암처럼 달아 올랐다. 양심적인 종교인과 지식인은 연일 성명서를 내고 단식에 삭발을 단행하면서 국민들의 열기를 부채질 했다.

학생투고

학생운동세력은 어떤 다른 민주 세력 보다 열기왕성하게 폭력정권에 대항하면서 하루가 멀게 거리의 이곳저곳에서 기습적인 시위를 벌였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건의 발생한게 비록 겨울철이었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비상연락을 취해 임중환 사육을 대적하려는 게 확인되었지만 서로의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나도 신문을 매일 보면서 온 몸이 쭈뼛 찡찡할 수가 없었다. 오라는 전화는 오지 않고 애간장만 녹였다.

2월6일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다. 조선배의 짧막하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1시까지 명진관 302강의실로 나와라!"

수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고 심장의 박동이 가빠졌다. 드디어 행동계시다 싶어 신바람이났고 한편으론 떨리기도 했다.

열렬한 교정에 매섭게 바람이 불고 바람결은 인정머리가 옷깃을 파고 들었다. 눈에 떠는 땀방울도 스관 주위에서 땀방울 피고 있었고 바깥쪽에서 인정을 날리며 어디론가 달리는 땀방울은 시위 때 종종 보던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바깥 공기보다 더 뜨거운 화염같은 명진관 석조 건물은 냉장고란 별칭이 너무나도 기막히게 어울렸다. 싸늘하고 울지던스런 건물 안에서 또각 또각 발자국 소리만 공명되어 울리는 게 침보영화의 한장면을 연상시켰다.

302강의실엔 이미 갈은과 동료들과 조선배가 와있었다. 동료들은 거리시위에 일가견이 있을 정도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다.

명진관은 다열제로 한 번 열렸었다 하면 불발을 안가리고 각목으로 매리부수는 무지막지한 전투경찰이 승우는 테러리스트란 별칭에 어울리게 지능적이고 힘이 빨랐다.

나 나밖에 없다면 별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괜히 쾅기고 섰다.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누구 함께 같이 갈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혼자서 가기가 좀 그렇네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어떻게...?" 얼굴이 달아올라왔지만 속삭일 수 밖에 없었다.

모두 모인걸 확인하고 조선배는 우리가 모인 이유를 짧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남부지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수행되는 투쟁이러했다. 속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풀풀 솟아났다. 그리고 각 단마다 전투조와 꽃병운반조를 선별하기로 했는데 이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그동안의 투쟁 경험을 평가해 봤을 때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었다고 한다. 괜히 창피하기도 했지만 조직에서 그렇게 평가해주시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뭔가 시켜주기만 하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만 한층 분명해졌다.

모두 모인걸 확인하고 조선배는 우리가 모인 이유를 짧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남부지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수행되는 투쟁이러했다. 속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풀풀 솟아났다. 그리고 각 단마다 전투조와 꽃병운반조를 선별하기로 했는데 이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그동안의 투쟁 경험을 평가해 봤을 때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었다고 한다. 괜히 창피하기도 했지만 조직에서 그렇게 평가해주시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뭔가 시켜주기만 하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만 한층 분명해졌다.



"너의 뜨거운 투쟁열기가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한상이, 네가 화염병 운반조를 해보지 않겠나?"

"물론 학교 밖으로 운반한다는게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처음해본다는게 너한테는 많은 두려움과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너의 투쟁열기만 있다면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한단다. 세삼스레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겠지?.... 자, 결단을 내려라!"

로 판단하고 열을 올렸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경험이 있기보단 누구보다도 투쟁의지가 높다는 것밖엔 없습니다. 아직 일학년이긴 하지만 게으른 제일 뛰어납니다. 이번 일이 잘되면 올라보게 성장할 것인단다. 너무 일학년이라고 얕잡아 봐선 안될 것 같기도 하구요."

"대체 누군데 그래?" 승우가 궁금한듯 다급히 물었다.

"우리과 후배 전영이 말이 흥전영!"

▲ **폐와리** 일 마 전 일 가족 암매장 강도사건이 일어나 일간지와 방송에서 야단법석을 피워낸 일이 생겼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와중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소녀까지 살해한 반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경악해 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구멍이 생겼다는니 경찰 치안력의 한계라느니 하면서 '늑대의 (일기적)살인 사건에 경악'을 금지 못한다고도 평하고 있기도하다. ▲가대기원과 일로를 치달거나 KBS와 같이 관계인론이거나 이들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가지는 궁극적한계와 범죄의 사회적 연원을 속속들이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인 줄 안다. 이윤우가 목표인 언론

매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보도하여 수익을 늘릴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치안능력이 모자란다는 지적과 영기적이라는 표현도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든다. ▲극이사건을 보면 '괴이한 것을 즐겨 찾아다니는 모양'쯤으로 되어있고

새질서 새생활

영어로 그르테스카라고 나와있는 영기적인 말. Grotesque는 괴기함, 기괴한 등의 뜻으로 나오다. 이일이 단순히 기괴한 일인가 아니면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기 때문에 전쟁의 고삐를 더욱 세게 움켜쥐어야 된다는 것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본래부터 악하거나 착하지는

승우는 입을 벌여 내뿜은 눈물 사이에 주름을 잡으며 고개를 가늘게 끄덕였다. "그래, 개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지. 예가 좀 간간하기도 하고 계치가 있는 것같더라. 그렇지만 가구는 차음이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줘야 할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배가 철저히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거야." 승우는 펜을 갖는 것 같다고 했다.

"펜을 잡을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주관적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일학년이러는 게.."

조선배는 심히 적정어되는 눈치였다. 펜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었다.

"펜을 갖겠습니다. 제가 만나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번 임무를 성사시켜내겠습니다. 비록 제가 첫 경험이지만 선배로서의 위신도 갖고 후배들도 좀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단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구요."

"나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잖아?"

"그래, 고맙다. 너의 뜨거운 투쟁열기가 이번 투쟁속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생각은 어때?"

"한상이를 믿어봅시다.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승우는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내일 세부 계획과 투쟁지점을 알려주세요."

조선배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과 장소를 세세히 그렸다. 우리도 "응, 응"속으로 대답하면서 그림을 머리 속에 새겨 넣었다. 조선배는 특히 내가 화염병을 받아갈 지점과 시간, 그리고 갖다줄 장소를 두 번씩이나 확인시키는 세심함을 때려먹었다. 쪽지를 태워 없애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각자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의를 다졌다.

"자, 우리의 자그마한 투쟁이 혁명의 밑거름을 굳게 믿으시라. 그럼, 내일 투쟁의 현장에서 뜨겁게 만나요!"

우리 일일이 악수를 하고 환영의 교섭을 빠져 나갔다. 텅 빈 교실에 혼자만 남아있었다. 창틀 사이로 오소리바람이 생생거리며 비집고 들어왔고 창틀은 불규칙적으로 들쭉였다. <다음호에 계속>

구슬이 서말이라도...

올해도 대학생들은 화살처럼 쉼 - 지나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지체 뒤쳐이며 이곳 저곳 쓰나미 분주히 보낸 1년. 지금은 새롭게 배웠던 것, 느꼈던 것, 체험한 것들을 차분히 정리할 때입니다. 깊은 사색을 통해, 우리가 겪었던 활자화된 사상들을 내 사고와 행동의 일부부분으로 내면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올 1년 대학생활에서 얻은 보배로운 경험들을 산지식, 산경험으로 엮어야 할 때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